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강복시찰 가을시찰총회가 9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두천 언덕위의 신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 전도대상자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4. 다음 주일 예배기도 담당은 이준화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 기도는 배은희 집사님입니다.
5.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점심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친교 나누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예배기도(오전)	인도자	신태식 장로	이준화 집사	인도자
예배기도(오후)	김화현 집사	박선경 집사	배은희 집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9/2)	주사랑목장(9/9)	에덴목장(9/16)	갈렘목장(9/23)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5. 몽골 단기선교 여행을 떠나는 청년부를 위해서
6. 모든 환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 장승호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오지원 집사님
7.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남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80번(고린도후서 4장) 다같이
*경배찬송	15장(통 5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02장(통 408장) 다같이
대표기도	신태식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출 14:10-20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단
의
말
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장 10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24장(통 360장)	다같이
기도	박선경 집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요 16:25-33	다같이
말씀선포	“인생의 골짜기”	허영진 목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406장(통 464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5:1-9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5)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47:6-9 ‘창과 방패’(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폴과의 전쟁’

한여름을 지나면서 교회 마당은 폴과의 전쟁이다. 누가 ‘폴잎 사랑’이라고 노래했는가. 베고 나면 다시금 쑥쑥 고개를 내미는 폴의 생명력에 감탄을 넘어 징그러울 지경이다. 아이들이 뛰놀기도 하고, 주차공간이기도 한 교회마당을 그냥 그대로 두자니 자기 마음대로 자란 폴들로 잡초밭이 되었다. 예초기를 빌려다가 웃자란 폴들을 깎았다. 그것도 부족해서 한 집사님 부부의 섬김으로 교회 마당가로 돌아가며 작은 자갈도 깔았다. 이제 제법 마당다운 태가 난다. 아이들이 뛰놀기도, 주차하기도 한결 나아졌다. 그쪽을 쳐다보는 시선도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인다. 진즉에 그럴걸.

하지만 폴과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다. 아무리 베어도 끈질긴 폴의 생명력은 다시금 세상으로 나오려고 감행하듯, 믿음 생활의 깊은 골짜기에도 세상의 상념은 불쑥 불쑥 고개를 내민다는 것이다.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염려도, 근심도, 불평도, 세상 자랑도. 그래서 때론 서글프고, 때론 아프다. 이만하면 되지 않을 까하는 교만이 빌미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못하기에 옛 사람의 모습이 어느새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언제나 지금보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싶다.

교회 뒤편 어디선가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반가운 마음에 퍼뜩 그쪽을 응시했다. 가을소풍 나온 유치원 아이들의 단체복과 반질반질한 머리칼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눈 감으면 파란 새싹이 돋는 것처럼 저 아이들은 이제 인생 1막이 한창이다. 나는 비록 지금 잡초를 죽이는 생명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아이들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의 순수함을 떠올려 보고 있다. 처음 마음, 곧 초심의 순수함을 다시금 기억하자. 불현듯 이는 세상 소욕도 넘어 설 것이다. 어느덧 폭염도 물러가는 처서(處暑)가 지난 지 오래다. 계절이 오면 지듯이 찬란하게 스러진 옛 사람의 성정은 고이 봉인하고, 새사람을 입고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꿈꿔본다.

Written by 허영진